

Teacher Takeaway Webinar Series

Webinar 2

24 March 2023

Instruction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English Digital Literacy

영어 디지털리터러시의 지도원리와 적용

Heyoung Kim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김혜영(중앙대학교 교수)

Questions & Answers Report

웨비나 라이브 중에 실시간이나 텍스트로 답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 관한 응답입니다.

Question	Answer
<p>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의 역량 중 지식 정보의 재생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4 skills 중심의 교육(정확한 문법 및 문장의 해석, 문제 풀이)에서 벗어나 역량중심교육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자유학년제를 하는 중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평가(중간, 기말고사)가 있는 중학교 2, 3 학년 학생들에게는 역량 중심교육과정을 어떻게 환류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p>	<p>중간, 기말고사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좀 더 늘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검색하여 워크시트 채우기 (정보 검색력, 읽기 전략, 정답 있음) 2) 정보 찾아 요약하기/정보 찾아 (특정 대상에게) 글쓰기 (정보 검색, 지식 재생산, 루브릭 평가) 3) 특정 표현, 문법 요소에 대한 예시 찾아 해석하고 설명하기 (정답+루브릭) 4) 사전에 영작문 과업 (특별한 사회적목적이 있는 글) 알려주고 시험 때 외워와서 써보기</p>
<p>디벗? 이라고 하셨는데요... 디지털 ?? 무엇인가요?</p>	<p>「디벗」은 'Digital+벗'의 줄임말로 '스마트기기는 나의 디지털 학습 친구'라는 의미를 내포(공모전 선정작)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https://webzine-serii.re.kr/%EC%8A%A4%EB%A7%88%ED%8A%B8%EA%B8%B0%EA%B8%B0-%ED%9C%B4%EB%8C%80-%ED%95%99%EC%8A%B5-%E3%80%8C%EB%94%94%EB%B2%97%E3%80%8D-%EC%96%B4%EB%96%A4-%EC%A0%95%EC%B1%85%EC%9D%B8%EA%B0%80%EC%9A%94/</p>
<p>열린 교육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창의성 교육이나 재생산에는 효과적이지만 교수자의 평가나 학습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 둘 다 병행되어야 완성된 학습설계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수준의 학습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정확한 지도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실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맞습니다. 개인화가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보다 학습자와 관련된 각종 기록 저장 및 분석이 지금보다 잘되게 되면, 진단평가 후 이에 맞는 과제나 문제를 개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읽기의 경우 단원별 형성평가로 교과서 지문과 이독성이 유사한 새 지문으로 정기적으로 읽기 능숙도(속도+이해도)를 평가하여 각자 기록해 두게 되면 각 학생의 읽기 능력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향상이 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p>

Question	Answer
<p>사교육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할까요. 특히 디지털교과서나 AI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요.</p>	<p>신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앞서서 움직이는 일부 대형 사교육 업체가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다른 한편 국가에서 커다란 예산을 지원해서 시도교육청 차원의 인공지능 플랫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면 개별 사교육업체가 이를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참여자의 의지와 능력에 따른 변수가 크므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사교육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